

# 롯데그룹, 사랑과 존경 받아야...

신동빈 회장, 재무성과만로는 부족 ... 성숙된 기업문화도 필요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계열사 사장단에게 사회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기업이미지를 갖추자고 당부했다.

신동빈 회장은 6월23일 오후 경기 오산에 위치한 롯데인재개발원에서 <2011년 상반기 사장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아시아 톱 10 글로벌 그룹은 외형 확대와 재무적 성과로만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며 “건전한 기업문화와 투명경영은 롯데가 진정한 글로벌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실 있는 성장과 더불어 그룹규모에 걸맞은 책임 있는 기업이미지를 갖추는 데도 역점을 두어 사회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또 “상반기 그룹 매출과 영업이익이 안정적 성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하반기 국내외 경기상황이 쉽지 않은 만큼 위기에 대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2018 비전 달성을 위한 대규모 투자에 대비해 자금관리를 철저히 하고 국제 금융환경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유동성 확보에 주력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글로벌 경영 확대로 2018년에는 현지 임직원 수가 약 14만명에 달할 것”이라며 “다양한 국가의 문화를 이해하고 수렴할 수 있는 성숙된 글로벌 기업문화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사장단 회의에서는 2011년 하반기 경제전망 및 해외사업 확대와 관련한 전략 논의와 계열사 혁신사례 발표가 이어졌으며 신동빈 회장을 비롯해 롯데쇼핑, 호남석유화학, 롯데제과 등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 48명과 정책본부 임원 등 56명이 참석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6/23>